

이낙연 “방역과 경제 선방...경제회복세 가팔라질 것”

“코로나19 위기 거치며 바이오 강국 도약해야” 김태년 “방역과 경제 모두 잡은 유일한 국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우리는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선방해왔다. 올해와 내년 합산 성장률이 OECD 1위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경제 회복세도 가팔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해 4분기 경제성장이 반전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T 강국으로 도약했고, 한류

를 확산시키고 기초생활보장제라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강국,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의 제약을 뚫고 K-문화콘텐츠를 확산시켜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재확산 위기를 관리해왔다”며 “외국이 나 외신에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기를 반등시키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한국판 뉴딜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K-뉴딜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시장을 활성화해 고용과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주력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단계 조정을 계기로 투트랙으로 운영될 국난극복위와 K-뉴딜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은호기자



박수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시도지사들의 발표를 들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안철수 “文, 라임·옵티머스에 부끄러워해야...특검밖에 없다”

“청와대까지 뺀 부정부패의 증거...권력형 금융사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청와대까지 뺀 부정부패의 증거, 유력 대선주자 측근에게 파고 들러 한 범죄의 그림자를 색출하고 걷어내는 일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한다면, 이 권력형 대형 금융사기 사건들은 특검에 의해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펀드 환매 중단사건’이라고 애써 축소시키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꾼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권력의 비호와 관여가 합쳐진 중대 범죄”라며 “한 마디로 ‘정(정)·감(감독기

관)·사(사기꾼), 탐욕의 삼각동맹이 만들어낸 권력형 금융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문제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감독기관이 오히려 사기꾼 집단에게 컨설팅 수준의 조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이 피의자에게 도망갈 개구멍을 알려준 것과 진배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추미에 장관은) 조폭 잡으러더니 조폭 전담부서를 통째로 없애 버리고, 말쑥한 전문가들마저 수사에서 배제시켰다”며 “한 마디로 수사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저는 궁금하다. 과연 단순 사기와 뇌물만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차명으로 지분을 가졌던 청와대 행정관처럼, 또 어떤 여권 인사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악한 약의 세력에 적극 가담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발동을 명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그래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정답이고 답이다. 그것이 지금도 바닥 수준인 정권의 도덕성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은호기자

기본권의 보루 헌재 양성평등 ‘요원’

3급 이상 13명 중 여성 단 1명뿐 ... 올라갈수록 큰 폭 감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기관 내 양성평등에 있어선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3명 중 여성 공무원은 단 1명(7.7%) 뿐인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공무원 32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53명으로 47.8%를 차지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6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법사위 소관 타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격차’이다. 소병철 의원은 “정부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로 작년 전체 국가공무

원 681,049명 중 345,773명(50.8%)인 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기관 관리직급인 3급 이상 현황과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이 8.2%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가 아직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만 헌법질서 수호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여실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호기자

김종인 “4·15 총선 긴장감 유지해야...안이한 사고 안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5 총선 이후에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우리가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비대위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거에서

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이번 경선준비위 구성 과정에서 “잠음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잠음이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보기에 인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름이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선을 하는데 하등의 잠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선준비위에 소속된 위원들은 보

궐선거 후보로 나서지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물 세팅을 하는데 스스로 입후보 한 사람은 (경선준비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포기했던 삼일위원장직을 국감 이후 다시 배분하자는 문제로 논란이 생긴 부분에는 “처음에 원을 구성했을 적에 그 초심이 일정 기간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